

II. 변액연금의 특징과 성장추이

1. 변액연금의 특징

변액연금보험은 확정연금과 비교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한다는 가입목적, 세제혜택은 동일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연금급부액에 대해 변액연금보험은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 있는 대신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일반저축성보험보다 높은 수준이다. 확정연금은 자산운용을 일반계정에서 안정성 중심으로 운영하여 매년 결산하는 것에 비해, 변액연금보험은 특별계정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운용하고 매일 결산한다는 것도 차이가 있다.

〈표 II-1〉 변액연금과 확정연금의 차이점

구분	확정연금	변액연금보험
가입목적	노후소득 확보	노후소득 확보
연금급부액	인플레이션 헤지 불가	인플레이션 헤지 가능
가입비용	보험비용만 필요	보험비용과 펀드운영비용
보증	최저보증이율 제공 사망보험금보증	사망보험금, 적립금의 투자하락 위험의 보증
적립금운용	일반계정(안정성 중시)	특별계정(수익성 중심)
리스크부담	보험회사	소비자부담
결산	매년	매일
세제혜택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¹⁾	
약관대출	가능	가능
예금자보호	5,000만 원 한도 내 보호	대상 아님 ²⁾ (선택특약만 보호)

주: 1) 중도인출 등의 경우 제외

2) 금융위원회는 2010년에 변액보험의 최저보증보험금에 대해 예금자보호대상으로 추가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음

자료: 이기형 외(2012)

한편 변액연금은 최저보증급부와 수수료 체계 때문에 다른 보험계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변액연금 최저보증은 일정 시점에 특별계정 펀드의 가치가 약정한 수준에 미달하면 그 차이만큼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일종의 풋 옵션으로 보험회사는 시장리스크 중 일부를 부담한다.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일부 사업비가 분할 수취되고 있으므로 조기 해약 발생 시 보험회사의 미래사업비 수입가치가 하락할 리스크가 있다.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채널을 통한 변액연금보험의 계약체결비용 중 50% 이상은 7년에 걸쳐 분할 수취(방카슈랑스 70%, 온라인 100%)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은 최저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형태별로 보증수수료를 받아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이를 헤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주가리스크와 이자율리스크 등 시장리스크는 풀링을 통해 제거할 수 없으며, 변액연금의 장기성으로 인해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징에도 어려움이 있다. 변동성이 큰 펀드 선택이나 이전을 제한하고, 해약공제 및 장기유지인센티브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자행동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으나, 다양한 최저생존급부가 활성화되는 경우 관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자산소진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변액연금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금리리스크가 없는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연금은 매력적인 상품이므로 그 판매가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2. 성장추이

변액보험은 시중금리 하락, 주가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7년까지 급격히 성장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2012년 이후에는 수입보험료 20조 원 정도로 정체되었다. 그러나 변액보험은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적립금 규모가 109.1조 원에 달하며 약 8.3백만 건(국민 약 6명당 1건)이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명보험상품이다.

〈표 II-2〉 한국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10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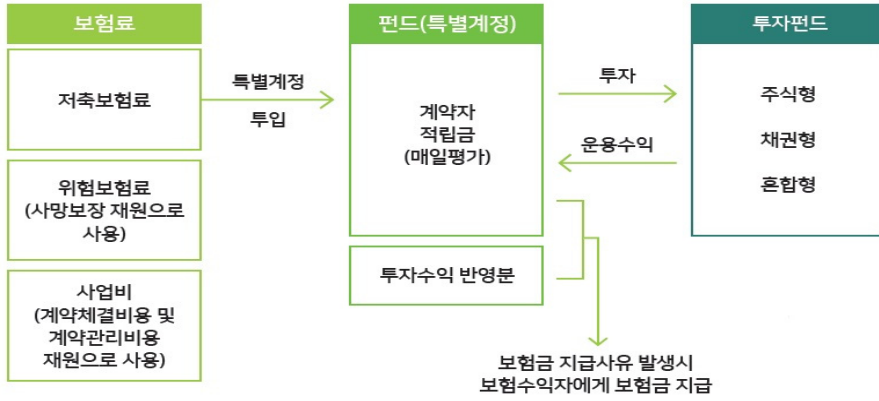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생보 전체	66,455	75,096	73,561	76,957	83,007	87,836	115,309	77,237	110,575	117,214	119,811	
변액보험	중신	330	340	364	358	380	405	419	321	485	529	540
	연금	5,042	8,250	7,943	8,479	10,158	11,277	10,850	7,106	8,637	8,071	7,420
	유니버설	5,630	8,230	8,613	7,721	8,259	9,004	9,296	7,495	10,611	10,829	10,357
	기타	526	572	672	631	617	608	659	622	939	1,214	1,088
	소계	11,528	17,391	17,592	17,188	19,413	21,294	21,223	15,544	20,671	20,643	19,406
생보 비중	17.3	23.2	23.9	22.3	23.4	24.2	18.4	20.1	18.7	17.6	16.2	

주: 2013년은 4~12월 실적임. 변액보험 관련 일반계정 실적은 제외함
 자료: 보험개발원 온라인 통계시스템 INSIS

변액보험시장이 정채국면으로 접어든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투자실적 부진과 함께 변액연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신뢰저하를 들 수 있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하여 펀드에 투자한다. 하지만 판매 시 관련 설명이 미흡하여 가입자는 납입보험료 100%가 투자된다고 오인하여 펀드수익률을 해지 시 수익률로 기대하게 된다. 사업비는 계약체결비용(설계사 계약모집 수당 등)과 계약관리비용(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보험회사의 경비)으로 구성되며 변액연금의 경우 보험료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변액연금의 경우 실제 기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 시 수익률은 펀드수익률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되어 특히 계약자 불만이 초래되었다.³⁾

3) 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2012), “K-컨슈머리포트 제2012-2호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제공”

〈그림 Ⅱ-1〉 변액보험의 현금흐름



자료: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2016)